

외대학보

학내기사를 읽고, 문제점 공감

한상 학보를 예측하는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보에서 학교소식 등을 접할 수 있어 좋다. 이번 호에서는 "열리지 않고 있는 가상대학" 기사가 좋았다. 가상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을 뛰어 주 듯 시뮬레이션되고 있는가? 계속 한 해 여문 형상을 가려하고 속 시원한 신문이 되길 바란다.

나우민 (동구·유교 3)

가상대학 내용도 실어야

"열리지 않고 있는 가상대학" 표제의 기사. 가상대학을 지적하는 데에는 상당히 공감했지만 그러나 가상대학과 가상공간이라는 것은 다르다. 학생들을 위해 개설과목과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이 기사를 읽는 학생들의 가슴속을 찢어뜨리는 듯 한 다.

신영성(서학·신방 4)

인터넷 글 삭제, 중용을 지켜야

"교수인용 과정 학생에게 공개된 글" 기사에 찬성하며 요즘 학교 인터넷에 논란되고 있는 교수인용과정에 대한 문제 한 마디 하길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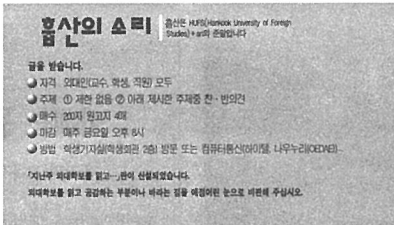
교수인용과정 진상조사위원회에 학생대표를 배제시켰다는 점(외부인사회의와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 인터넷 같은 공용매체에 인격모독이 섞인 글을 발췌하는 것 또한 문제라 본다. 그래서 사재를 하교 교수단독으로 하지 말고 교수단(진상위원회)에 맡기는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자율성의 원칙에 맞게 사재위원회의 어떤 형태로든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인격모독 등의 심한 부분만은 삭제하는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옳아라 본다.

강성일(서양·스칸디나비아어 3)

원서로 된 글도 실었으면

원래 신문에 관심이 없자만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타 대학신문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학교 기사가 더 낫다는 듯 하다.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고 학교 내·외적으로 그리고 그날 일변신(변신)하는 생감이 동경(동경)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원서로 된 글도 몇 개 실으면 어떨까?

이태경(서학·영어 1)



관성화된 농활을 탈피하자

을 가을에도 어김없이 농활(농민학생 연대활동)은 수행되었다. 그러나 각 단과대 사정상 많은 단과대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결함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연대부터인가 농활은 이제까지 해오던 일이나가 되풀이한다는 식의 인일하고 일회적인 행사로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은 농활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한두번 외박 수 농활을 기리한다. 그저 공허한 안면 한 농활의 목표와 미약한 선전, 발판 달라진 것이 없는 반복활동, 진을 빼는 평가와 규율, 의례적으로 하는 정리정돈, 바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그걸로 거창한 이름의 '농민학생연대활동'을 끝. 다음을 농활을 준비할 즈음에 되어서 다시 농민과 농촌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중연대, 농학연대 등의 가치를 높이 내걸었지만 막상 농활에 해당하는 글이나 무언상이 있었나라는 식이 되어버린다. 그해의 경우는 대개 농활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고 후배들을 행하기 위해 당위적으로 농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농민들의 반향도 농활대를 처음 받는 마을에서는

호기심 반, 개개관 반으로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지만 몇 년 경험해 본 마을에서는 극도로 무관심해진다.

농활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이 교류하고 연대하는 장이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활을 수행하고 평가와 이후 후속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공동의 고민과 논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농활의 모습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학생 중심적인 사업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연대의 원칙을 올바르게 세우고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활은 농민과 학생 모두의 공동과제, 공동의 사업이다. 농민과 학생이 농활의 진정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당한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학연대사업에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협의구조가 지역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된 농민들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농업이 개발되고 농민들의 위해 주도로는 올바른 지역농업의 실현이 향후 지방화 시대 농업의 과제에 따라서 지역적 특

성과 실정에 근거한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개발과 구체적인 실천도 필요하다. 형식적인 분반활동을 지양하고 농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지역 및 마을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자치, 환경, 지역개발, 문화, 교육,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농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농촌공동체의 지속과 비약적인 발전은 지역농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을 주민들간에 마을과 마을간에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가운데 지역농업이 고민되고 희망적인 전망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활은 바로 지역의 농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을단위 클러스터-이정, 지도자-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가 모두 농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민이 확고하게 마을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민과 학생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마다 담담하게 되풀이되는 정리정돈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성화된 정리정돈을 지양하고 규모보다 다양한 문화축제 등을 통해 농활을 지역의 공익사업으로 정착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농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활은 결코 환상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할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자원을 버려야만 관성화된 사업으로서의 농활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농활을 돌아보아야 한다.

김성식(동양·인도어 3)

전닝막기 위해 대학내 풍토개선 우선

한남에는 도(道)가 있으니 이를 6도(六道)라 한다. 그 첫째는 작발한 친구를 인가(인가)하는 것이니 이를 인(仁)이라 한다.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한남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니 이를 의(義)라 한다. 셋째는 보여준 사람보다 마땅히 접수가 낮아야 하는 것이니 이를 예(禮)라 한다. 넷째는 감독자의 특성과 우정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니 이를 지(智)라 한다. 다섯째는 한남의 담이 이상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신(信)이라 한다. 여섯째는 감독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감히 실행하는 것이니 이를 용(勇)이라 한다.

이런 종류의 계고를 듣고 한번쯤 공감하며 웃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발한 사고가 다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학생인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정행위'의 문제이다. 우리 부정행위에 대해 처한 우리의 현실과 개인의 가치관 등을 되돌아보아 반성하고 싶다. 부정행위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틀어박힌다면 대부분이 필요에 따라 하거나 또 남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단지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만 들 뿐이지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려는 경우는 드문 것을 볼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후속처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가장 최고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그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외대인

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통감하고 각성해야 하며, 작발에 추궁되었던 '외대'에 양심있는 동문 같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들도 계속적인 풍토개선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한다. 교과과정과 늘려서 수강인원을 일정 인원으로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험보다는 수업이나 레포트 등의 비중을 높여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학우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미리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강의의 질과 선택권도 높이고 실제로 실력을 키우는 외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현 사회를 바꾸는 게울이요, 또 하나는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두가지를 모두 행하는데에는 정직함은 기본이다. 작은 일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큰일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하지 않을 것이다. 몸값과 배려함이 오호라 사회체계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며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외대인으로 사기를 버린다.

(CC, CAM, UBF, JOY, RAM, SFC, YWAM - 서울을돌리자 기독교동아리)

정당한 방법이 진정 빠른 길

서울 한 복판의 도로를 본 적이 아마 누구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빠른 차들의 움직임, 마치 경주라도 하듯 차들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움직인다. 이런 차들의 모습은 요즘 우리

나라는 거진데 탈세 할 돈은 어디서?

-미국자-

원서의 일각일 분, 드 러난 것이 과연 전부인가?

-이문선

가다려와 탈세시켜 줄테니깐

-한진그룹

로켓 사탕국 직원

어느 기업이라고 탈세를 안했는가. 이런 특징 없었나?

-중앙일보 사회부 발행자

이항 수시하러면 편파적이 않게 공정하게 했을 한다!

-오 대기업 대변인의 실언(?)중에서

조선일보, 스포츠동아는 캔들야(?)

-지하철에서 신문파는 자에게

탈세자들아, 단걸 하라!

-재벌연합

2000년도 졸업준비위원 모집

2001년 2월 졸업생을 대표하여 취업과 졸업을 성실히 준비할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 상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 모집인원
각 단과대 1명
- 신청기간
10월 15일(금) 17시30분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발표일
중간고사 이후 개별 통보
- 문의 및 제출처
졸업준비위원회(학생회관 325호, 구내전화 4158)

용인배움터 졸업준비위원회

'99 외대개혁과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공모



세부제안안을 총학생회장 제출

- 누가
외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또는 Project (교수·학생·직원·동문 등)
- 무엇
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기 고려)
- 어떻게
학교 개혁 부문(조직체계, 제도개혁, 의사개혁) 교육개혁, 교육개혁, 인사개혁, 교육개혁, 대학정보화, 정보개혁, 연구지원 대책추진부문
- 어떻게
1999년 10월 말까지

- 심사
외대 개혁을 위한 재건위원회(재건)로 제출하여 교수·학생·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다.
- 심사기준
1)공공성: 외대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가
2)사회성: 얼마나 한국사회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가
3)창의성/미래지향성
4)실행가능성/효율성/구체성
5)내용성: 외대의 위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당첨된 제출자에게는 소정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모든안은 발간된 수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말

용인배움터 '본실물 센터' 운영

'본실물' 걱정 뚫!

"충 열람실에서 반지 주우신 분 모양은 글자만 가운데 분홍빛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커튼만입니다. 커튼만이라도 연락주셔서 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서울배움터 도서관에 붙은 대자보다. 주위에서 지갑이나, 핸드폰, 귀중품들을 찾는 절박한 내용의 대자보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본실물이 많다는 이야기지만 그 본실물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주운물건이나, 분실한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생활협)에서는 '본실물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본실물 관리는 한군데로 모아지는 곳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건물에서 나오는 본실물들은 건물 안내실에서 보관하고, 생활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활이 따로 보관하는 체계는 관리였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생활은 학생회관 생활복도에 본실물을 전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입주일에 한방에 관리하고, 생활로 본실물을 수거해 모든 본실물들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 생활생활 문화부 최정애(동구·형가)가 3양은 "건물마다 본실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본실물센터를 앞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에서도 입주일에 한번씩 들어 본실물을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본실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한다. "지난 학기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본실물이 들어왔는데, 찾아가는 것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지갑이나 핸드폰같은 것들은 찾아가는데 사소한 것들은 찾지 않는다"고 학생복지위원장 안정환(상경·경계 4)군은 말했다.

생활이나 복지위원회의 본실물센터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기물건에 대한 주인정신과 사랑이 필요하다. 용인배움터 어른과 안내실 직원 김갑남씨는 "침소하더라도 나오는 물건을 거의 방학전까지 보관한다. 학생들이 잘 안 찾아 연락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화해서 찾아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번 생활 본실물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본실물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윤홍은 기자



동아리 연습공간 문제

연습장 구하기 = 하늘의 별

10월은 각 동아리들의 정기공연과 각 예술제 등으로 문화행사장인 달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나 작은 규모의 공연에서는 돈문제나 공간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동아리나 작은 공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2주에 걸쳐 각 동아리·과의 공연, 공연장자를 다뤄 보기로 한다.

편지

신고를 하고 시청각실에서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 외대 연극회 구지훈(서양·이태리) 1)군은, "공간을 빌리려고 각 동아리들이 일정을 조정 하는 것 또한 제대로된 논의 구조가 없이 힘들다"고 전했다.

동아리들의 공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외대 동아리 동아리 회장 신일용(서양·영여) 2)군은 "한공구가 있기는 하지만, 만지작거릴 뿐 항상 공기가 탁하다"라고 말하며 노천 지하 동아리의 열악함을 전했다. 음악 동아리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 했으나 지하층인 관계로 다른 동아리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아리들은 과방과 달리 방음벽도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 되어있지 않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대한 걱정도 털어 놓는다.

3)군은 지하에 동아리 방을 갖고 있는 조경부 부원 김민지(동양·태국) 1)은 "비가 오면 동아리방에 물이 들어온다. 사시는 너무 오래되어 벽지 거리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동아리방 시설에 관한 테니스부 재학생 대표 김상호(서양·독일) 2)군은 "3년째에 있는 동아리들은 우편물을 받기만 기다린다" 우편물이 동아리방에 많은 노천 지하에 있기 때문에 3년째에 있는 체육부와 동아리들은 우편물을 받아보기도 힘들다. 동아리 연합회 체육 분과장 정준희(상경·경계 3)군은 "동아리 생활 공간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공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야구부와 마식주구부는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는데 공간의 부족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다. 이와 관련 테니스부 재학생 대표 김상호군은 "테니스부 같은 경우 토요일 마다 마식주 코트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운동장을 다목적 코트로 만들어 코트가 없는 배구부와 핸드볼부가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연의 힘으로만 복지자금을 해결할 것 힘들다"라며 동아리들의 재재가 불가피함을 전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습공간 부족 문제는 3)대 연습실 마련, 동아리방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 회회·동아리들의 연습, 공연공간 부족은 이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성의있는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박준표 기자

생활

'특례 입학' 속 특권익식

바야흐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와 특별전형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그 러나도 매년 등장했던 '연예인 특례입학'도 도마위에 올랐다. 연예인들이 연기, 가수활동 등을 인정받아 '특례'로 입학하는 데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경우가 '특례'로 공부하는 데 따로 있고 놀다가 가는 게 있어 보이는데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들이다.

특수인 계사관들이 올라오는 이런 비판들을 읽으며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지 '연예인 특례입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속엔 열심히 일한자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너나모양 타고, '백'을 쓴 사람들이 중국에는 저 달인이라는 우리사회의 '특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게 되는 사실은 특권 대학들이 학교홍보를 위해 지니한 '연예인 모시기'에 나서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가수활동을 위해 작곡가로 가겠다는 연예인이 연예계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우리 동생은 고교생이다. 그대는 매일 4시간씩 자기 스프레스트 밟고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혜만 제대로 바꾸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건지. 연예인특례입학도 올바른 제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체제대로 가수는 음대쪽만 지원 가능이라든지 연기인들은 연예계만 지원하든지. 수능을 몇몇 이상 이든지. 그 동생들 한 명 여학생이 올린 글이다.

꼭 공부하느라 이러저러 애들한테 애들이 있 다면 특례입학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학교급간이 홍보를 위한 매체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명문'한 세상을 꿈꾸며 이제 막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부끄러워할 일이지 않겠는가? 불 일이다.

정서윤 기자

작은 것부터 바꾸자-1

대자보 관리

너털털이, 넉넉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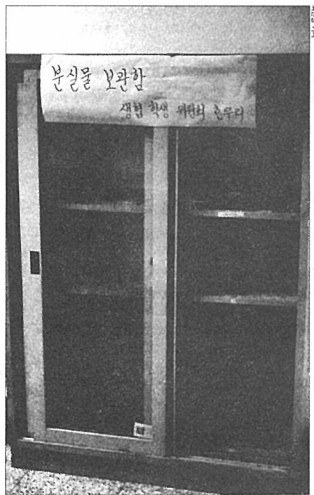
행사자 많은 10월 배움터에 게시판들의 요즘 모습입니다. 게시판은 우리의 얼굴! 기호의 지난 대자보는 앞에서 보고, 불알에는 테이프가 보이니 열거 신경 쓰는 게, 어렵진 않겠지요?

우리말

흔치(寸) - 돈봉투

작은성의 비단 흔(寸)과 뜻 지(寸)로 이루어진 흔치는 직역하면 '순간' 혹은 '마디'란 뜻인데도 그만큼 작은 정성을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어떤 고마운 일이나 성의를 표시 할 일이 있을 때 봉투에 넣어 건네는 작은 선물이거나 현금으로 뇌물의 성격을 띤 금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흔치(寸)는 거대한 착지(尺)가 되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본뜻을 잊고 '거액의 흔치'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 흔치는 상함에 따라 '돈봉투'나 '책갈' 혹은 그 뜻 그대로 '작은 성의'라 바뀌어야 합니다.

(학사되는말글씨 우리말연구회)



우리말

세상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

이형근 지음
해들누리 8,000원

국어의 풍경들 고종서의 우리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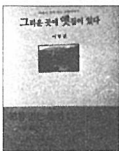
고종석 지음
문학과 지성사 8,000원

대학문화 사이트

<http://www.kyunghee.ac.kr/~phealth>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제작·프로그래밍
감독·변경주
* 대여문화·외대 영상사업단(901-4035)



최동원씨,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 인적없는 오솔길의 여유로움 등 고향집의 그림들.

문화유산단사 간사인 이형근씨가 전국 24곳 마을, 초가, 99간집, 설, 서원 등 옛 집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풀어 놓은 문화유적지 소개서다. 전문적인 소개서라기보다는 그 마을이나 집에 사는 사람 위주의 이야기다. 그 중에는 낙안읍성이나 송광사처럼 꽤 알려진 곳도 있지만 생소한 곳도 많다. 또 박경리 소설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군 경사리도 소개되어 있다.

막상 그곳엔 소설의 주무대인 최창환은 없지만, 미로같은 들길, 여민네들의 사랑방인 샘물에서 '토지'의 분위기를 어렵잖아 느낄 수 있다. 또한, 정화수, 장승, 딸들, 장미꽃처럼 그리움이 묻어나는 여러가지 소재들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찾아가는 방법과 문의할 곳도 나와 있다.

'연개소문과 김춘수 사이의 정치회담'은 흥미로웠을까? '하느님과 하느님'은 다룬건가? 등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궁금했던 문제들을 이 책은 여러 예시와 명쾌한 설명으로 정리해 준다. 부제로 붙은 '우리말 강좌'란 말에 걸맞게 고대에서부터 언어의 사회화, 북한말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일부는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가 걸터온 길, 한국어의 언어와 문장, 한국어의 소리, 언어의 사회화, 북한말의 풍경 이렇게 5개의 큰 틀로 전문적인 한국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쉬운 국어로 나누어져 있어서 부담없이 읽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 말미에 붙어있는 남북한의 한국어관련자들에 대한 서적의 '개성적인 평가'도 관심을 끈다.

90년대 들어 '대학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런 목소리를 접해왔었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있다.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를 위한 '대학문화 사이트' 운영진이 그들이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대학문화건설' '문화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진지한 담론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한국대중음악론, 노래운동에 대한 담론 등 실제 문화에 뛰어들려는 문예일꾼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도 있다. 아직 개설하지 오래되지 않아 담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올바른 대학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빠른 관광의 실태를 제주, 태국, 일본 등지에서 취재 기록한 작품이다. 매춘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뿐 아니라 국가라는 체계 하에서 묵인 내지는 권장되고 있는 매춘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합법 매춘업소에 눈을 돌리는 변명주 감독은 이 작품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낮은 목소리' 1,2편을 제작했다. 57분 분량으로 감독의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영상이다.

- 외대영상사업단

인터넷 · PC통신 권리 실태

가위질, 당해 보셨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당신이 PC통신, 혹은 인터넷에 피문글이 붙은다. 국가안전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이유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찰로 출두하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98년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굳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얼마전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불법적인 도, 간첩, 통신감청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월 말 또 하나의 통신감청 사건이 일어났다. 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PC통신 나무우리의 진보통신망 '천우문(OW CW)' 방에 등록한 자료의 삭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현존한 9-10월 의식화지점서'였다.

정보통신위원회가 보내온 자료를 요약하면 '본 게시물은 내용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의 내외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의해 통시행령 제16조의 4 제4항에 의해 내용상 삭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천우문 운영진은 강력히 항의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 통신감청을 중단할 것 △PC통신망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성

사이버 권리 선언

The Declaration of Cybrights

- 인권선언50주년을 기념하여 사이버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 사이버 권리 선언의 정신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는 서명을 하게 주십시오.
- 이 사이버 권리 선언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계속 네티즌들의 활동에 관여할 것입니다.
- 조만간 <98 정보통신감청백서> <97 정보통신감청백서> <98 사이버권리 백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통신상의 검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은 98년 통신망에 감청에 반대해 발표한 '사이버 권리선언'

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통신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함께 공동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 문화가 우리 안방으로 깊숙히 침투할수록 그에 따른 정보·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정보통신 감청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매년 '정보통신 감청백서'에 따르면 '검열은 보호의 대상을 우회하고도 존재하며, 감

력한 중앙권력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열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법 조문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규정'을 살펴보면, 17조 국가의 집사유지 항목에서는 '누구든지 국가안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수많은 단체들 중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상정하며 만약 정당한 하더라도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불합리성들에 대응해 통신인들이 모여 '통신연대'라는 명칭으로 98년 '사이버 권리백서'를 채택했다. 그간 있었던 통신감청이나 해방 법 조문을 모아 편찬한 이 백서에는 '사이버 권리 선언'도 명시되어 있다.△나무우리안에서 의견개진할 자유와 정보 소통의 자유를 가지며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자기정보통제권'을 갖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통신연대'에서는 현재 검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시행령 16조를 위헌소송 건 상태다. 정서운 기자

문화단신

서울

독일어와 노래에 이인하이트 공연

독일어와 노래에 이인하이트(DENNETT)의 아홉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8일(금) 대강당에서 열렸다. 우리가 즐겨듣는 이인하이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화요일마다 새로운 곡으로 연주했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원어인 'An die Freude', 'Die Irden'과 독일어와 산베를의 자작곡 'Nicht zu sein', 'Hilfslos' 등이 소개되었고, 전조공연으로 수화 동아리 손소리들이 수화로 '영원한 사랑', '만남' 등 노래했다. 행사와 관련 회장 이대훈(사망·독일어 2교)은 "과외의 소모임들이 의미를 찾고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 공연이 다른 소모임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어니더 뷰' 필름 페스티벌

상경대영화회 '어니더 뷰(ANOTHER VIEW)'가 지난 11일(월)부터 오는 페스티벌 13일(수)까지 3일간 연례 '필름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비주류의 주류화'라는 기치로 동성애, 청춘, 공포 세가지 주제를 다루는 이번 영화제에 총 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작품중에는 에니메이션이 3편 있으며 1편씩 대영진작 작품도 상영된다.

민중가요 노래대 '새물결' 공연

민중가요 노래대 '새물결'의 24회 정기공연 '같이'가 지난 7일(월) 열렸다. 이번 공연은 '나'를 주제로 사랑, 사회, 우정을 다뤘다. '우산' '이별의날' 등 총 11곡이 연주되었다. 청중 황상기(사망·독일어 2교)은 "자녀보다 반주를 단순화시키고 대신 음향을 보강하는데 차이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공연

국토순례반 전시회 열려

국토순례반은 지난 4일부터 6일(수)까지 3일간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14번째 추계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여름방학중 2042년의 하계순례, 왕산이론체육대회, 창간 기념식 등 일련의 행사를 사진자료로 정리하는 자리였다. 순례기념, 순례복, 모연-재주도까지 순례여행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80년대 산베를의 국토순례 중 찍은 사진과 특강을 장소에서 찍은 순례 때 찍은 사진을 비교하는 '비교, 비교'는 한눈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본어과 '하이라' 원어 연극 공연

일본 고전작품 '타케토리오노키요메'가 일본어과 원어 연극인 하이라의 준비로 지난 9일(목) 후백궁 4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작자미상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야기인 이번 작품은 대나무속에서 태어난 키구야메라는 여자를 둘러싼 여러 사건의 전개로 기반으로 기록한 삼국유사의 성향을 풍자한 내용이다.

더대학보

9월호

안내

현안 9번째 판

오는 12월(목)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총물결 현안9번째 판이 열린다. 이번공연은 함께 가지 우리 이길 줄이란 주제로 현대문학의 발달로 인한 공존과 문화의 상실에서 통일이 하나의 대안임을 그리고 있다. 공연이외 고사를 시작으로 예전 공동체문화의 상징인 풍물제 연주와 현대 문학의 상징인 김복동의 대립, 개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원형설화사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함께 펼쳐진다. 또한 토.장.구.의 개인들을 이 각자 나눠져 있다가 다시 합치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상징하여 관객과 함께 하는 대동놀이도 진행된다. 부원 김다연(연문·사학 2교)은 "기원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작을 하며 많은 생각을 담았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위대

서울배움터 서반어과 '아울라'

아울라는 서반어과로 '감의식'이라는 뜻이다. 아울라는 1980년대 현 시대와 사회를 조명해보고 중남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회이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연구방법을 조금 바꿔 중남미 지역에 초점을 두어 공부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학문에 대한 폭넓은 배경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중남미 전체를 조목조목 살펴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박준연

(사망·서반어과 2)

을 다루어 그 연구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아울라는 또한 정기적으로 학술지 'AULA'를 발간하여 학부생들에게 중남미 현안 문제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해 생각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양자 학술의 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현실감각을 다져주고 있다.

다기오는 해 2000년에는 21세기를 여는 해임과 동시에 아울라가 탄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앞으로 아울라는 강의실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연구와 세미나를 뛰어 넘어 더욱 더 역동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친근해지는 모임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단 서반어학을 공부하는 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중남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라 21세기에 맞는 대외개방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확립해 나가려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학 연구의 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용인배움터 동인지 보도

동아리, 그땐 그랬지...

2천 동아리학생들의 잔치마당인 동인지가 지난 5.6일(수) 양양길 용인배움터 곳곳에서 열렸다. '새천년의 황산, 다시보는 동인지'라는 기치로 열린 동인지는 벌써 17번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였다.

5일(수) 풍물제 한알의 갈매이를 시작으로 한시를, 마스터리스, 비너리의 공연과 점도부, 활타의 시범공연이 있었다. 특히, 새로 동아리로 인준받은 벤치마크가 스튜디오 에이제이의 자체제작으로 이루어진 DMR대회가 많은 후우들의 호응을 받았다.

둘째날은 이벤트드레스로 해무리, 외비비, 아웃사이드, 로고, NCA의 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학생회관내에서 영화 '악'을 상영하여 색다른 맛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진 학술제, 국토순례반의 국토순례전시회, 시간사냥의 답사 전시, 분산부의 우리음악사관들 등 많은 동아리의 학생적 참여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동인지 주제가 '추억'인 만큼 각 동아리의 그 동아리 동인지 참가 모습을 담은 '추억전시회'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각 동아리들의 활동모습과 소개가 추려진 사진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동인지에 처음 참여할 점도부 박은영(동학·중국어 1교)은 "각자 자기 동아리 문 안만만 다른 동아리가 무엇하는 지 모르고 지내는

입력

본보 원 '위대'에 '위대'에서는 각계의 특이한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는 곳에서는 학부생으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 서울 96142
용인 0265-30412

99년대의 문화계 보도

99년, 다시 살아오는 전태일

TMF 이후 대한민국 같이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내분열된 가가 죽을때보담도 가심이 아팠었다.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싸우면 타인인데 그게 그리 힘든지...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짐을 지을지 모르겠지 시멘트 도로를 걷기? 정말 하나가 됩시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씨가 24회를 맞는 전태일 문화제에서 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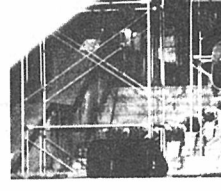
"1990 다시 만나는 전태일"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토)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는 민주노조 총재 위원장 강경길, 박기환, 유기환, 지역연대의 노조들 노동 운동에서 배가 끊은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노래도 부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는 훈훈한 자리였다.

첫무대 '불나'의 민중가수 최도은씨의 노래를 시작으로 MBC노조 노래대 노래사랑, 박준, 정태준씨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지며 행사는 열기를 더해갔다. 이어진 이야기 마당에서는 70년대 YH노조, 동원방직 노조, 창계비료노조 등을 이끌며 한국노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노동자들이 결성한 70년대노동운동 동지회 소개되었다. 230대를 탄방을 어린 작업현장에서 보내고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어서도 노동계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당시 파업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흔들리지 않게' 등을 부르며 관객들을 70년대 향수했던 노동운동 현장으로 이끌었다. 또한, 유신정권을 무너트리는 결정적 계기

가 된 79년 YH신민당 참정농성, 경찰이 투표를 하러온 동원방직 노동자들에게 물을 퍼부은 사건현장들을 찍은 슬라이드도 상영됐다. 70년대 노동운동조직화과정 경험문제는, "불필적 탄압은 그때보다 덜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속에서 한타위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연대해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가 말했던 '수많은 나, 전체'의 나'를 찾는 정신이다"며 현재 노동계가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송민규씨와 강은영씨의 공연으로 전태일 열사의 편지 및 시 낭송이 펼쳐졌다.

"꽃다지"의 공연으로 1부는 막을 내리고 2부는 참석한 공연자,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제공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에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야반 행사장 입구에서는 70년~90년까지 노동운동자료와 전태일열사의 친필편지, 당시 유인물들이 전시되었다.

300여명이 모인 공연장에는 아이들 손을 붙들고 온 가족원과 관람객이 눈에 많이 띄었고 '열린공간'의 이점오 지니가는 학생,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대중의 장이었다.

정서운 기자

눈돌리지마시오

이 곳은 양심중요이니
통행에 불편하시더라도
제대로 돌아가십시오

중간고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대인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잘보세요.
절대 킨은 안돼요!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

연극평 · 99 서울연극제 참가작 '춘궁기'

끝나지 않은 한민족의 '춘궁기'

지하철 해화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면 화려한 비현실의 공간으로 들어선다. 10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 축제연극제가 올해는 '공연 양식의 재발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서울연극제는 국악, 관현악은 물론 거리 양식의 걸출한 농담과 노래까지 들려주고, 대사가 없이 관객을 뒤흔치는 마임극에서 실내용 그리고 길극까지 연극자들 두루 보여주기 기회 공연예술의 백화전이라고 할만하다. 동등한 일대는 그러나 예술가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웃고,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의 미당 같은 곳이다.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된 박수진의 '춘궁기'는 그의 처녀작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웃기고 동시에 감동시키는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산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련 사소한 사건이 인물의 과거를 이리저리 한 국경정세까지 함께 조망할 인자를 준다. 그래서 열거하기에 건지려를 태우는 듯한 해화에 싹트듯 웃다다도 관객은 극장을 나서며 생각에 잠긴다. 한 마을의 사건이 시간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무대는 오랜 가뭄에 목이 타는 강원도 산골 마을을 의형리, 개밥의 바람이 불고 도회지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지다 산을 뛰어 도로를 낸다는 소문까지 퍼다하게 퍼진다. 마을의 큰 할매는 언제부터인가 앞산을 뛰고 다니는 밀랍 끈들로부터 사슴을 구해왔다고 좋아대다가 기지개를 켜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된다. 기절한 큰할매의 의식 속에서 엄청난 소리는 모든 슬픔과 그리움의 근원인 육이오의 파발소리와 연결된다. 파란강을 건너는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남편은 곧 뒤따라왔다고 약속해놓고 남하한 것이었다. 파란 도중 총에 맞아 죽은 어린 아들의 기억은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를 5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빛에 걸린 사슴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졸아준다. 배에 있는 남편과 딸에 대한 그리움이 살았다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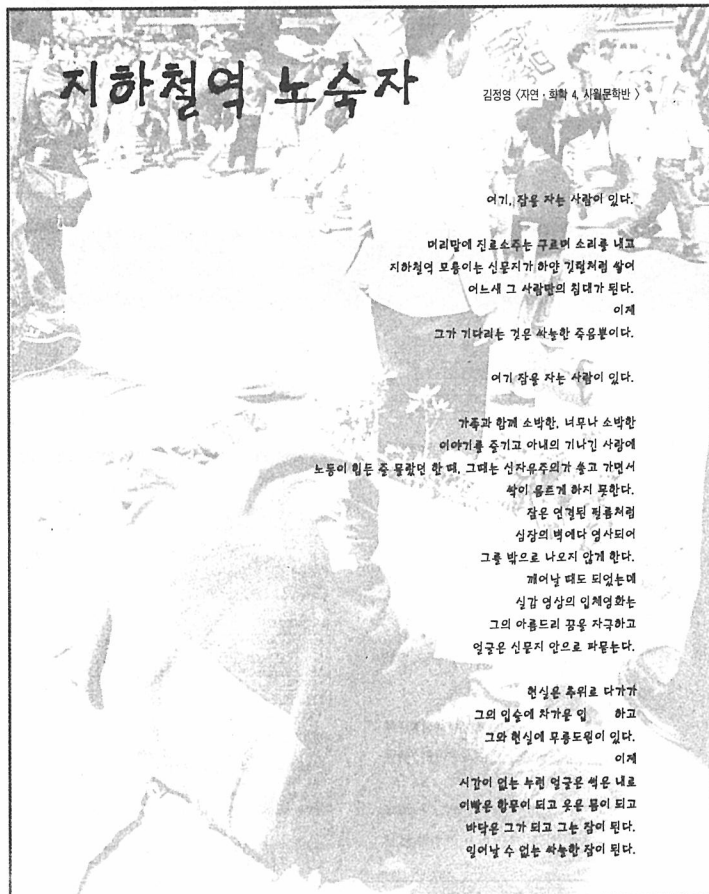
의형리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보여주는 세계는 1999년 오늘 북한의 처참한 상황이다. 가족

이 남쪽에 있다는 이유로 탄압으로 끌려간 남편 분출은 딸 분회를 키우며 홀로 살아가는. 분회는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노래삼으로 기쁨조가 되었다는 목포를 세우는 딸 분출은 차라리 북한을 탈출하여 남편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었다.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분회는 정치적 망명자를 저처하여 남편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나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다가 중국과 리오스 국경에서 지뢰를 밟고 사망한다.

분회의 어머니 찾기 실패와 낯선 타국에서의 죽음은 의형리에서 사랑에 의해 새로운 희망으로 대변된다. 노총과 우봉은 (분회의) 최후의 연이 동시에 연(기하)는 이화를 좋아하는데 이화는 열매를 부지듯 막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서 그의 애를 태운다. 우봉이 사랑을 정취하려고 이화를 좋아하는데는 것과 함께 같이 하여 마을 사람들은 젊음을 이기기 위해 가우제를 지내게 하고 재물로 쓸 사슴 사냥을 떠난다. 큰할매는 또다시 위험에 처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어나간다. 사람들이 결국 큰할매의 실패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반짝이고 비가 쏟아진다. 이화가 우봉의 구애를 받아들이자 우봉은 즐거워 어쩔 줄 모르고 가뭄에서 벗어난 마을사람들은 잃었던 웃음을 되찾는다. 두 젊은이의 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양쪽에서 서로 그리워하며 관중을 키로 서있던 두 아내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느낌이 든다.

급강한 중독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 후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반과 감자밖에 먹지 않았습다"라고 읊조리는 어느 관공제의 모습을 TV에서 본 사람은 '춘궁기'의 큰할매 가슴 속에 들어있던 한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은 눈물샘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몇십 년 묶은 고향과 슬픔과 그리움으로 맺은 가슴 깊은 곳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쓰러진 과거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회색빛보이면서도 속은 이 연극의 무대배경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는 슬픔의 시대, 지금이 바로 한민족의 춘궁기를 겪는 극적 상징성을 통해 응원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손 동호
(영화와 교수)



1999년 10월 7일 목요일
빛바랜 보라색
93년 9월 23일 첫 목요일집회를 가진 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매주 목요일마다 300명의 눈사람을 적시는 동안 내 보라색 머리 수인은 빛이 많이도 바랬다. 오늘날도 난 차치한 감정이 있을 양상치나 불리는 내 새끼를 생각하면 미치도록 저어오는 가슴아픔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차가 멀리도록 막막한 심정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해
-민간회 양심수 석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 외대학원 자주화 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서울배움터 7천 외대인 주인 선언에 1만3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는 93년 9월 23일 첫 목요일집회를 가진 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매주 목요일마다 300명의 눈사람을 적시는 동안 내 보라색 머리 수인은 빛이 많이도 바랬다. 오늘날도 난 차치한 감정이 있을 양상치나 불리는 내 새끼를 생각하면 미치도록 저어오는 가슴아픔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차가 멀리도록 막막한 심정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해
-민간회 양심수 석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

우리는 93년 9월 23일 첫 목요일집회를 가진 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매주 목요일마다 300명의 눈사람을 적시는 동안 내 보라색 머리 수인은 빛이 많이도 바랬다. 오늘날도 난 차치한 감정이 있을 양상치나 불리는 내 새끼를 생각하면 미치도록 저어오는 가슴아픔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차가 멀리도록 막막한 심정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를 위해
-민간회 양심수 석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집회